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4/20~2026/04/26]

2026.04.27

[로봇] 한국 대표와 미국 대표의 로봇 양산 동향

- 테슬라 옵티머스의 공개 지연. Gen3는 올해 중반 공개. 양산은 7~8월부터 개시
- 현대차/기아차 실적 발표에서 올해 하반기 로봇 센터 개소 및 미 로봇 법인 구체화될 것이라 발표
- 뉴로메카, 15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방산]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미국

- UG D&A 말레이 해군 수주와 미 비공 기대감. 한화는 美獨 미사일 진입 노력과 印 K-9 추가 수주 기대
-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록히드마틴 철수. T-50 추가 파이프라인, KF-21 수출에 집중
- 미국 미사일 소진에 재고 보충 속도전. 일본은 방산 수출 허용해 동남아 마케팅 본격화

[조선] 기대감이 집중되는 조선

- AI와 엮이는 조선. 힘센엔진의 데이터센터 발전과 삼성중공업의 플로팅 데이터센터
- 미국 관련 여러 소식들. 무인함정 협력과 선박법, 필리핀조선소 확장, 해외 함정 설계 도입 가능성 검토
-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참여 통해 캐나다에 941억달러 기여 가능하다고 어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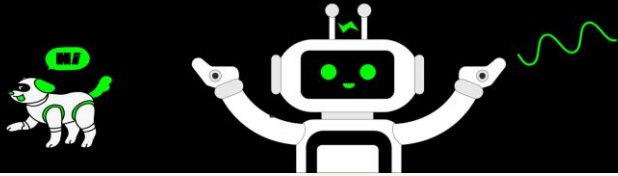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국토부 운수권 배분

- 국토부 운수권 배분. 35개 노선, 11개 항공사에 배분
-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항공사 비운항 편수는 748편에 달해
- 미국 정부, 파산 위기에 처한 스피릿항공을 직접 인수 및 구제금융을 제공 방안 검토 중

[해운] 벌크 구조적 강세

- 美 국방장관, 대이란 해상봉쇄 전세제로 확대. 유럽, 아시아에 책임 분담 요구
- 美 외국적선 연안수송 허용 8월까지 연장. 트럼프 존스법 유예 90일 연장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3~4월 미국산 원유·LNG 아시아 수출량 +30%yoj 증가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한국 대표와 미국 대표의 로봇 양산 동향

로보티즈와 테슬라의 양산 동향 업데이트. 로보티즈는 수요 증가에 우즈벡 CAPA 확장을 계획 대비 서두르고,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첫 양산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3)

[한국 대표와 미국 대표의 로봇 양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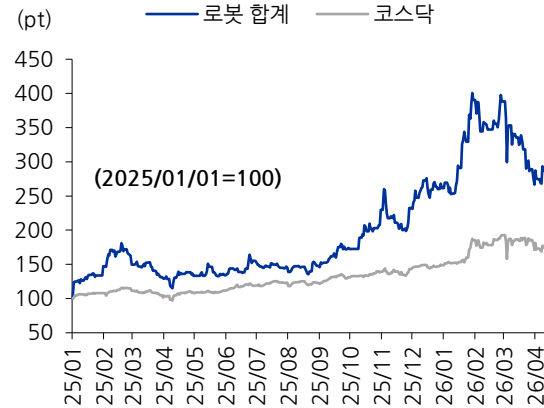
- **한국 대표(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수요 호조. 작년에도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액추에이터 수주 기록(약 40만대). 수요 증가 속 동사는 작년 유상증자를 통해 우즈벡에 신공장을 구축 중(액추에이터 기준, 연 300만대 CAPA). 2027년 데이터팩토리 우선 가동, 2028년 액추에이터, 2031년 이후 휴머노이드 생산 계획이었으나, 수요 증가에 현지 공장을 개조해 서둘러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 **미국 대표(테슬라):** 미국 프리몬트 공장의 기존 Model S/X 라인을 철거 후 전용 라인 구축을 추진 중. 2026년 7~8월부터 옵티머스 생산 개시 예상. 기가 텍사스에서도 2공장 건설 중이며, 2027년 여름 생산 시작 목표. 양산 초기에는 부품 수(1만개+) 및 공급망 이슈로 생산 속도 제한적이나, 2027년 본격 랩업업을 예상 중.

Key Chart: 로보티즈 우즈벡 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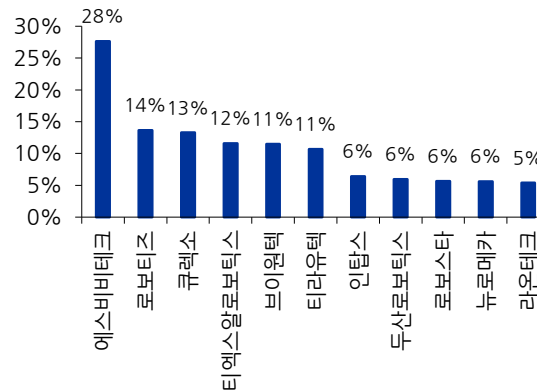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verse

로봇 주요 뉴스(04/20~04/26)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큐렉소,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 참가

[휴머노이드]

- 로보티즈, 자체 액추에이터 기반 'AI 사피엔스' 공개
- [부품/SW/기타]
- 현대차 "로봇 센터 3Q 개소. BD CEO 선임 진행 중"
- 기아 "美 로봇법인 출자 규모·방식, 올 하반기 윤곽"
- LG 로봇 로드맵 공개. "액추에이터 내년 글로벌 공급"
- 육군, 현대차 아틀라스 요청. 문제는 '비무기화 서약'
- 뉴로메카, 주주배정 유상증자·무상증자 결정
- 국내 휴머노이드 ETF 12개 돌파. 합산 시총 2.2조원
- 대성하이텍, 테슬라와 로봇 핸드 양산 체계 구축
- 리얼월드, 5지 로봇핸드 전용 VLM 5월초 美서 공개
- HD현대로보틱스, 상주 주관사단 일단 '철수'
- 빅웨이브로보틱스, 코스닥 예심 통과

[Global]

- 테슬라, 옵티머스 8월 생산. "모델 S·X 생산라인 전환"
- 머스크의 고백 "테슬라 옵티머스 '손' 설계 실패했다"
- 롤랜드버거 "휴머노이드 시장, 2050년 최대 4조달러"
- 中, 8월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 개최
- 中 푸두로보틱스, 1.5억 달러 조달
- 中 러쥘로보틱스 IPO 주간사 선정
- 애지봇, 해외 확장 속 미국·유럽에 생산 거점 검토
- 가와사키중공업 "4족보행 용접 로봇, 2028년 실용화"
- 우크라이나, 올 상반기 지상 로봇 2.5만대 조달 추진



Weekly Keyword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미국

RTX, NOC, LMT 등 주요 미국 방산 기업들의 1Q26 실적 발표에서 전쟁에 따른 재고 소진으로 전방 무기 수요가 강한 상황을 확인. 수요 증가에 증설도 진행 중이나, 미국 자국 수요 대응이 우선.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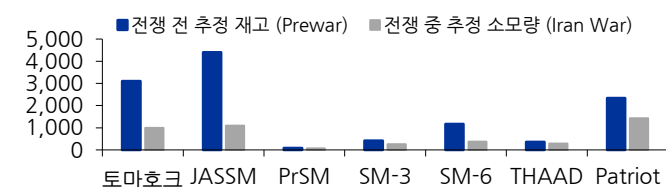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71)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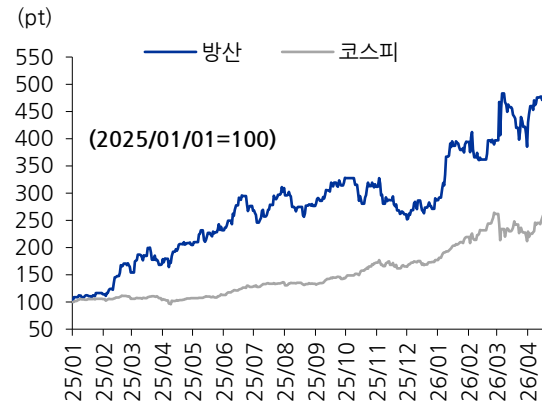
- RTX, 노스롭그루먼, 록히드마틴의 1Q26 어닝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항은 바로 미사일류 수요 증가와 증설, 그리고 공급망 병목에 대한 이야기. 중동 전쟁에서 미사일 재고 급격히 소진되면서, 재고 확충 수요가 확대되는 중. 미사일류에서는 로켓 모터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품목에 대한 공급망 병목 리스크가 존재.
- RTX는 탄약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RTX는 헨츠빌의 Redstone 미사일 통합 시설에 1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탄약 생산 능력을 50% 이상 늘릴 계획. 노스롭 그루먼은 지난 몇 년간 SRM 및 탄약 기술과 시설 현대화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전술 SRM(고체로켓모터)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림. 2027년까지 추가 확장도 추진. 록히드마틴은 PAC-3 미사일 생산량을 현재 연간 650개에서 2,0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기업들의 증설은 당연한 미국 재고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 자국 수요 대응에 집중하면서 동맹국 공급 차질 우려 확대. 이는 국내 방산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전망.

Key Chart: 미국 미사일 재고 현황(단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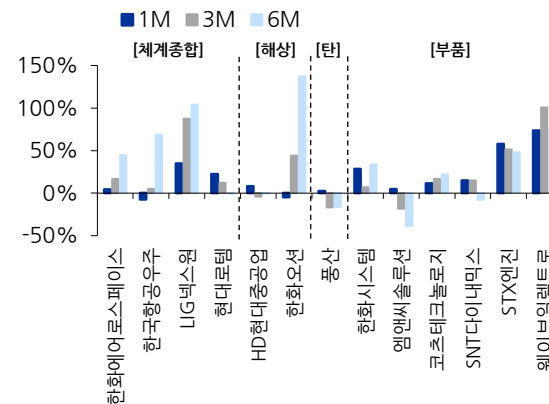


자료: CSIS,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4/20~04/26)

[수주/계약]

- 인도 'K-9 바즈라' 200문 추가 도입 추진
- 한화시스템, KAI와 KF-21 EOTGP 최초양산 계약 체결
- 엠앤씨솔루션, 한화에어로와 265억원 부품 계약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노스롭그루먼과 미사일 추진체 공동 개발
- 한화, 독일 방공미사일 시장 진입 추진
- 한화에어로, 풍산 인수 포기 없다. 전략 수정 후 재추진 검토
- 한화, 방산 로비 150만달러로 급증. 美 방산시장 총력
- LIG D&A 말레이시아 해군 1,400억원 계약 체결
- LIG D&A, 美 해군과 '비공' 공급협상 진행. H-60 탑재 검토
- KAI, '헬기 핵심' 주기어박스 국산화
- 말레이시아 'FA-50M' 1호기 전격 공개
- 한화시스템, 30년 매출 CAGR 16% 이상 목표
- 파블로항공 '군집 자폭드론' 나토 방산시장 진출 눈앞

[기타]

- 캐나다 육군사령관 "군 현대화 위해 韓방산업계와 협의 중"
- 美 전투기·군함 수리 거점(RSH)로 한국 주목

[글로벌]

- 록히드 마틴, 해군 훈련기 경쟁에서 철수
- 美, 핵심 무기 14종 '속도전 지정'. 미사일 예산 188% 폭증
- 일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방산 대국 야심'
- 스페인 자주포 '기존대로' 추진. GDLES 재창소 예고
- 프랑스, 로켓포 도입 결정 임박. 35년까지 배치 계획
- 젤렌스키, 푸틴과 정상회담 다시 제안



Weekly Keyword

기대감이 집중되는 조선

조선 업종에 호재 만발. 데이터센터용 엔진 공급과 플로팅 데이터센터 기대감 외에도 미국발 이슈 다수. 안두릴과 함정 건조부터 MASGA도 업데이트. MASGA 추진 위한 법안 발의 동향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1)

[기대감이 집중되는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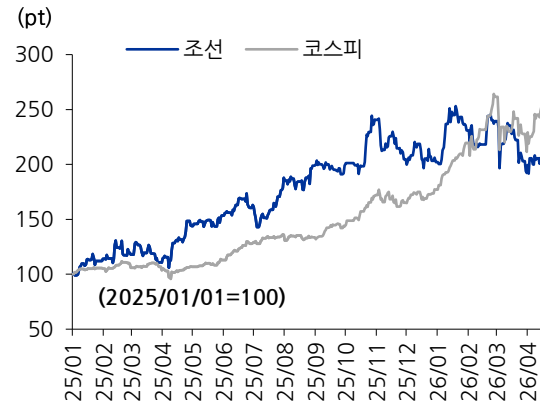
- 지난 주 조선株는 데이터센터용 엔진 공급과 플로팅 데이터센터의 기대감에 상승했으나, 미국발 이슈들도 다수 확인.
- (1) HD현대는 미국 안두릴과의 무인수상정 협력에서 실제 시제품 건조 단계로 진입. 핵심설계검토를 마치고 첫 번째 무인수상정 시제품을 건조 중이며, 10월 진수 후 연말까지 시험운항을 추진할 계획. (2) HD 현대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해군연구청, ONR의 핵심 연구과제 2건을 수주. AI 기술을 활용한 함정 성능 개선과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함정 건조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과제. (3)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USNS 리처드 E. 버드함 정비 사업을 추가로 수주. 올해 3번째 수주. (4) 필리조선소 확장 공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 (5) USA Shipbuilding Coalition 결성 및 SHIPS법 통과 촉구. MARAD(해양청)은 2월 발표된 MAP 이행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 (6) FY2027 예산안에 외국 호위함-구축함 설계와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18.5억 달러 규모 연구개발 예산이 포함됨

Key Chart: 미국 Ships Act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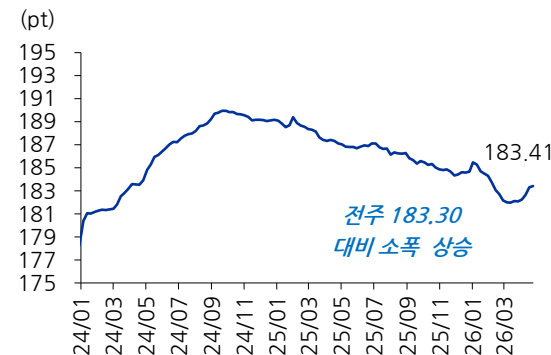
| 시점 | 내용 |
|-----------|--|
| 2024년 12월 | SHIPS for America Act 최초 발의 |
| 2025년 4월 | 119대 의회에서 재상정 |
| 2025년 10월 | 상원 Commerce Committee에서 관련 청문회 진행 |
| 2026년 2월 | 트럼프 행정부 Maritime Action Plan 발표 |
| 2026년 4월 | USA Shipbuilding Coalition 출범, 하원 청문회 개최, 법안 통과 압박 재점화 |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ver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4/20~04/26)

[상선/해양]

- HD현대중, 미국 데이터센터 향 6,271억 '엔진 수출' 계약
- HD현대중공업, 국내 조선소 최초 쇄빙전용선 수주
- 그리스 JH 스팀십, 한화오션에 VLCC 전격 발주

[특수선]

- 안두릴과 HD현대 첫번째 USV 생산에 착수
- HD현대, 미 해군연구청 과제 국내 첫 수주
- HD현대중, 美 해군 7함대 함정 정비 3연속 수주
- 한화그룹, 캐나다 앨버타주와 MOU
- 한화오션, 캐나다 CPSP에 GDP 941억 달러 기여
- 한화디펜스USA와 마그네틱디펜스가 MUSV 협력
- 한화오션, 칠레 국영 조선소와 함정 건조 추진. 3단계 합의안
- 한화오션, 레이도스와 MOU. 美 해군시장 진출 '속도'
- "홍범도함 '복구불가' 판정아니다. 화재조사 안끝나"
- KDDX 배치II 개념설계 '한화오션 수의계약 유력'
- 8천억 태국 호위함 수주전. 한국 2사 포함 6개사 경쟁

[기타]

- 삼성중공업, 플로팅 데이터센터 개념설계 인증 확보
- HD현대, 인도 정부와 신규 조선소 설립 업무협약 체결
-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

[글로벌]

- 바르질라, 텍사스 데이터센터 790MW 규모 수주
- "선박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美 조선 연합 대동단결
- 미국, 해외 조선소서 군함 확보 검토. 한국 설계도 후보
- GTT "중동 분쟁으로 신조선 인도 지연 없다"



Weekly Keyword

국토부 운수권 배분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을 실시. 35개 노선을 11개 항공사에 배분. 중국 노선 확대하고 지방발 국제선 노선이 강화됨. 이스타항공이 가장 많은 운수권을 가져감. FSC는 동유럽 노선을 강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1)

[국토부 운수권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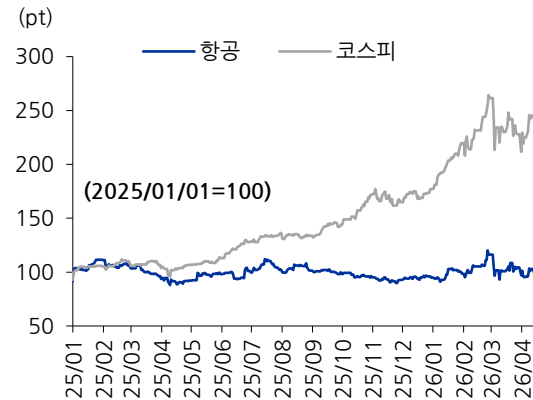
- 23일 국토부가 35개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을 실시. 이번 운수권 배분의 핵심은 (1) 중국 노선의 확대와 (2) 지방발 국제선 노선 확대.
- 중국 노선은 베이징과 상하이뿐 아니라 청두/충칭/샤먼/항저우/광저우/닝보/우시 등 2선 대도시까지 공급을 확대. 중국 노선 증편은 인천 발 외에도 부산 및 청주, 대구 등 지방 공항발 운수권도 다수 배분됨.
- 이번 배분의 최대 수혜는 이스타항공. 총 44회(+마닐라 주 1,330석)를 신규 확보. 제주항공도 부산과 대구발 상하이 노선을 확보한 점 긍정적. FSC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선 강화하고, 티웨이항공도 헝가리 노선과 호주 노선 추가 배분 받으면서 장거리 역량을 확대.

Key Chart: 국토부 운수권 배분 현황(상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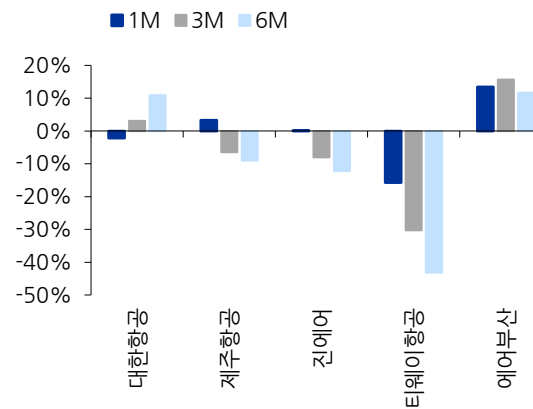
| 항공사 | 배분받은 노선 |
|--------|--|
| 대한항공 | 한국/독일(주 3 회), 인천/우시(주 3 회), 부산/베이징(주 1 회), 한국/마닐라-인천-마닐라(주 2,600 석), 서울/뉴델리-첸나이-벵갈로 2 노선(주 1 회), 한국/뉴질랜드(주 3 회), 한국/오스트리아(주 3 회), 한국/호주(주 325 석) |
| 아시아나항공 | 한국/독일(주 2 회), 한국/헝가리(주 3 회), 인천/닝보(주 3 회), 한국/호주(주 308 석) |
| 티웨이항공 | 한국/헝가리(주 5 회), 한국/호주(주 730 석) |
| 제주항공 | 부산/상하이(주 3 회), 대구/상하이(주 3 회), 부산/구이린(주 4 회), 제주/청두(주 2 회), 제주/충칭(주 3 회) |
| 진에어 | 인천/이창(주 3 회) |
| 에어부산 | 부산/광저우(주 4 회) |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4/20~04/26)

[여객/화물]

- 韓 항공사 748편 비운항. "'비수기' 2분기 실적 직격탄"
- 이스타, 인천-엔타이 7월부터 왕복 주 14회로 증편
- 에어프레미아, 미주 네트워크 완성. "워싱턴D.C. 취항"
- 티웨이항공, 다낭-울란바토르 추가 비운항
- 에어프레미아, 5~6월 다낭 노선 비운항
- 에어캐나다, 인천~몬트리올 운항 재개
- 1분기 한중 여객 439만명. 하늘길 더 넓힌다

[기업별 이슈]

- 에어로케이항공도 객실·운항승무원 무급휴직 실시

[기타]

- 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한중 하늘길 확대
-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 5월부터 공항사용료 납부 유예
- 보잉 B737-8기 모의비행장치 항공훈련센터 도입

[글로벌]

- 미 정부 스피릿항공 인수 저울질
- 보잉 CEO "中 대규모 주문, 트럼프 행정부 지원에 달려"
- 日 항공사, 유류할증료 5월 발권분부터 약 2배로 인상
- 루프트한자 단거리 노선 2만편 수익성 악화로 감축
- 中 C919, 핵심부품 수급난에 인도 지연



Weekly Keyword

벌크 구조적 강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크 시장 강세 지속 중. 단순 경기 순환적 반등이 아닌 수요 회복에 따른 구조적 개선으로 판단. 향후 양호한 수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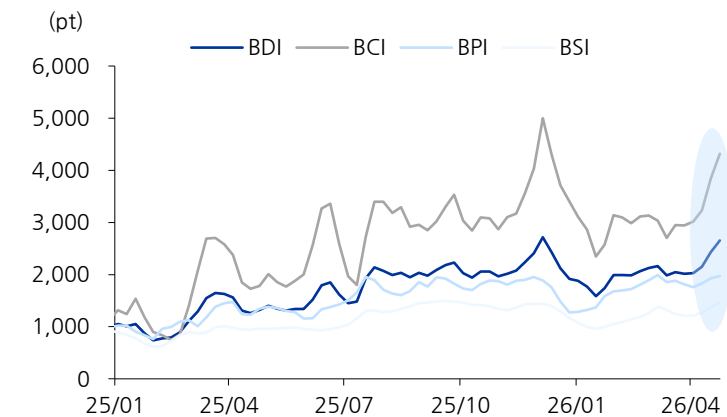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4)

[벌크 구조적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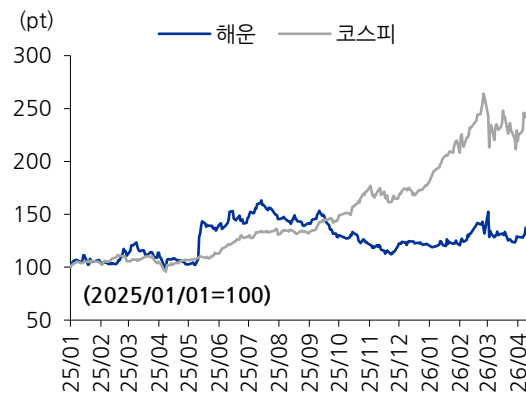
-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싸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며 해협 내 혼란 확대. 그럼에도 벌크 시장은 Capesize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 4/24 주간 기준 BDI는 2,655pt, BCI는 4,318pt로 202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이외 벌크 지수(BPI, BSI) 또한 동시 상승 중.
- 철광석 교역은 호주, 브라질의 수출 강세와 중국의 견조한 수입 수요를 바탕으로 강세가 이어질 전망. 반면 석탄 교역은 인도네시아 수출 감소와 중국, 인도 수입 둔화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 예상. 벌크선 시장은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변동성과는 별개로, 철광석 중심의 구조적 수급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Key Chart: 벌크 운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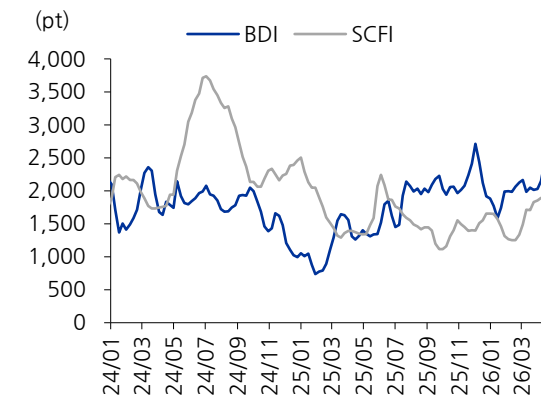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v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4/20~04/26)

[벌크선]

- 호르무즈 해협 혼란에도 건화물선 시장 강세 지속
- 핸디사이즈 벌크선, 대서양 선박 부족으로 시장 반등
- MOL, 운항중인 석탄 운반선에 윈드채린저 장착

[탱커/가스선]

- 3~4월 미국산 원유·LNG 아시아 수출량 +30%yoy 증가
- 캐나다 선라이즈 확장 프로젝트 승인, LNG 수출망 확대
- 팬오션 5만톤급 MR탱커, 페트로나스에 2년간 장기용선
- 장금상선 노후 LNG 운반선 폐선 결정, 선대 효율화 박차

[컨테이너선]

-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전략적 재배치 결정
- CMA CGM, 컨테이너선 1척 인도국적 추가 등록
- 광양항, CMA GGM 신규 원양 항로 유치

[기타]

- 트럼프 휴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이란 "인정 못 한다"
- 美, 이란 원유 관련 중 정유해운사 41개 제재
- 美 국방장관, 대이란 해상 봉쇄 전 세계로 확대 선언
- 美 존스법 유예 90일 추가 연장, 외국적선 8월까지 운송
- 이란 혁명수비대, 해협 통과 선박 3척 공격 및 2척 나포
- 이란 호르무즈 통항료 법제화 본격화, 우호국은 일부 면제
- 정부, 해상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논의
- 북극항로 참여 선사 공모 27일 시작, 9월 운항 목표
- 글로벌 선박 노후화로 해상 선체 보험 청구액 급증
- 현대글로벌비스, 중동 리스크 속 1분기 해운 부문 선방
- 日 NSU, Rio Tinto와 메탄올 DF 선박 장기운송계약 체결